

REAL

세종사이버대학교

NEWSLETTER



SJCU Highlights

P.8 — P.9

Real People & Talk

P.2 — P.7



SJCU Plus

P.14 — P.16

VOL. 2



세종사이버대학교

뜨거운 열정을 품고 도전하는 삶

이른 나이에 초등학교에 입용되어서 교장으로 퇴직하기까지 40년 가까이 교사로 살아왔다. 은퇴를 앞두고,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으니 퇴직 후에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리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다. 그러면 중 세종사이버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신설된다는 공문을 접할 수 있었다. 교직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를 알리는 능동적인 봉사의 길이 될 것 같아 망설임 없이 편입을 준비했다.

세종사이버대학교에 합격하고 나서, 예순이 넘어 다시 대학생이 된다는 것이 조금 민망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학교생활을 해오며 그런 생각은 말끔히 사라졌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즐겁고 무엇보다 ‘학우님’이라고 불리는 지금이 참 행복하다. 평생 ‘선생님’이던 내가 ‘학우님’으로 불릴 수 있다니,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할까?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샘솟는 기분이다. ‘학우님’은 그만큼 내게 설레고 희망에 찬 호칭이다.

한편으로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다. 한국 사람으로 60년을 살면서 국어 교과를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친 것만 40년인 내게도 한국어는 어려웠다.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말의 문법이 까다롭고 변칙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만큼 공부량도 생각보다 많지만 나는 학생이라는 신분을 만끽하며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 초등학생들에게 모국어인 국어를 가르치는 것과 외국인

에게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그 방법부터가 완전히 달라서 새로운 자극이 되기도 한다.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 자격을 취득했지만 한국어교사 자격은 내게 새로운 도전이어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한국어 교원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다양하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한국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가슴 한 켠에는 제3세계로 나가, 아직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오지의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전하고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고 싶다는 더 적극적인 마음도 품게 되었다.

이런 내 진심이 통해서인지 이번에 코이카 봉사단에 선발되어 파라과이로 2년간 파견된다. 꿈이 이렇게 빨리 현실로 다가와 감격스럽다. 막상 출국일이 다가오니 내 선택이 너무 성급했거나 무모하지는 않았나 두렵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어학과 1회 졸업생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보고자 한다. 단지 2년간 파라과이에 머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뒤를 이어 해외봉사활동을 나가 한국어를 가르칠 후배들이 나를 통해 ‘60세가 넘는 사람도 해냈는데 나도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고 싶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도와준 세종사이버대학교는 내 무한한 젊음의 뿌리다. □

REAL :

리얼(REAL)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속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진짜' 모습을 담는
소식지입니다.

REAL

Vol. 2

발행일

2016. 11

발행인

김문현 총장

제작

세종사이버대학교

기획 및 디자인

홍디자인
홍시커뮤니케이션
02.6916.4400

사진

Sssauna studio
김경수

그의 도전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사회복지학과
오윤진 교수

● 도전이 있어야 성취가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10대 시절,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윤진 교수 가 제일 먼저 한 말이다. 이어 그는 ‘나는 박사가 될 거다’라고 되뇌 며 하루를 시작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았다.

“저는 12살 때 의료사고로 한쪽 눈이 실명됐고, 다른 눈의 시력도 서서히 잃었습니다. 어릴 때라 그런지 공놀이를 못하게 된 것을 뼈 곤 크게 슬프지 않았어요. 또 아버지께서는 늘 저를 데리고 다니시며 제가 당당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항상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가족들의 지지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오윤진 교수가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발판이 됐다. 게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읽은 ‘1호 맹인 박사’인 강영우 박사의 전기『빛은 내 가슴에』는 그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책을 읽고 그는 ‘나도 강영우 박사님처럼 박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유학을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원래 영어를 좋아하던 그는 그날부터 영어 단어를 하루 10개씩 외우며 의지를 다졌다. ‘도전을 해야 성취가 있다’는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는 10대 소년의 마음에 도전의 씨앗을 심었다.

“돌아보면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비교적 일찍 꿈을 가졌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맹학교를 다니던 청소년기에 많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곁에 있었어요. 그 형, 누나들은 제가 꿈을 잃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사회사업과를 다니던 형을 만나 ‘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처음 듣게 되었어요. ‘내가 비록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나도 누군가를 도우며 살 수 있겠구나’란 생각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야겠다고 그때 결심했죠.”

오윤진 교수는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국립맹학교 고등부를 졸업 했지만 그를 받아주는 대학은 드물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중앙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갔고, 이후 어릴 때의 결심대로 미국 피츠버그대로 유학을 떠났다.

“나름대로 영어에 자신이 있었어요. 강의를 듣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날 선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대학원 수업은

빛은 잃었으나 희망을 잃진 않았다. 삶의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가족이 보내준 지지와 스스로에 대한 강한 믿음을 되새겼다. 긍정의 힘으로 자신의 꿈을 펼친 오윤진 교수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오늘도 값진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사회
복지
학과
오윤진 교수

盡人事待天命



66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를 겸허히 기다립니다.⁹⁹



오윤진 교수의 좌우명

사람의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의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을 마음에 새긴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할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오윤진 교수가 사용하는 점자정보단말기

빛은 잃었으나 희망을 잃진 않았다. 삶의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가족이 보내준 지지와 스스로에 대한 강한 믿음을 되새겼다. 긍정의 힘으로 자신의 꿈을 펼친 오윤진 교수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오늘도 값진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토론이 대부분인지라 좌절의 연속이었죠. 그때 함께 수업을 듣던 친구가 저에게 이런 충고를 해줬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자신도 토론수업이 어렵다고. 그러니 괴로워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요.” 그렇게 오윤진 교수는 다시 한번 힘을 냈고 석사와 박사과정을 무사히 마쳤다.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고자 하는 그의 계획도 착착 이뤄져, 한국의 여러 대학과 면접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임용을 직전에 두고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몇 번씩이나 낙방하기도 했다. 분명 절망스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다른,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 믿었다. 그리고 2005년, 그는 마침내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믿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 사회복지학,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꾼다

현재 오윤진 교수는 세종사이버대학교와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강의를 맡고 있다. 지난 2013년엔 교육부 국가과제로 <시각장애인 고등교육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도 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더 나은 이(e)러닝 교육법을 설계하고 기존 제도를 보완할 방법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였다.

“1995년에 장애인 특례입학제도가 생겼지만 아직도 여려 측면에서 장애인은 교육의 소외계층입니다. 물리적·환경적으로 제약이 많지요. 효율적인 학습환경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선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50% 장학혜택을 제공하는 등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e)러닝은 장애인은 물론 물리적으로 학습에 제약을 받는 비장애인 학생들도 수월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앞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수업을 진행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시대가 올 것이라 덧붙이는 오윤진 교수. 그는 말한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엔 4가지 강점이 있다고. 첫 번째는 세종대와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의 복지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해외연수 프

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다른 그 어느 사이버대 보다 활발한 2개의 자원봉사 동아리(세사봉, 섭기미)가 있다는 것이다.

“세사봉은 지난 2006년에 제가 설립한 봉사 동아리입니다.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학생들은 사회복지학의 현장을 자원봉사를 통해 경험할 수 있지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세종사이버대학교에 시각장애인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대학 내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만나고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의 의의를 배우게 됩니다. 사회복지학은 개인에겐 삶의 행복을 위한 학문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모두가 함께 사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학문입니다. 또 사회 소외계층에게 관심을 갖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갑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학생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얼마나 뿌듯했는지요!”

그의 제자 중엔 시각장애인임에도 공부에 매진해 공무원이 된 학생도 있다. 오윤진 교수는 이처럼 학생들이 배움을 발판으로 꿈을 향해 한발 더 나아갈 때 큰 보람을 느낀다. 또한 학생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나가 나눔을 실천할 때, 더욱 크고 따뜻한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일까. 인터뷰 내내 그는 ‘함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처음 ‘사회복지학’이란 꿈을 품은 10대 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오윤진 교수. 앞으로도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다. R

12살 때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후, 차차 반대쪽 눈의 시력도 잃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다. 2005년 세종사이버대학교에 부임, 지금까지 후학을 양성 중이다.

배움의 가치, 나눔의 가치

부동산자산관리학과
박순용 동문

● 아쉬웠던 배움의 조각을 채우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선 공부보다 물 긴 기, 소 풀 듣기가 더 중요했던 중학생 때.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박순용 동문이 고등학교 입학 대신 선택한 것은 서울행이었다. 서울에 올라와 고물 장사도 하고 플라스틱 공장에서도 일하다 특 전사 전역 후 동생과 함께 자동차 부품 고물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2년 후,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구명가게 규모로 운영되던 폐차 사업이 정부의 정식 허가 사업으로 전환되자 위기가 찾아왔다. 1983년 당시 현금 5천만 원의 예치금, 2천 평 이상의 자가 소유 공장용지가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인천 시내 적격한 땅을 살살이 찾아 폐염전 용지부터 매입한 그는 같은 상황에 놓인 사업자를 모아 인천시 관할 폐차사업소 1호를 출범했다. 박순용 대표가 만 30세 때 일이다.

“이 사업마저 못 하게 되면 끝이라는 생각에 정말 절실했어요. 하지만 생각뿐이었다면 절실히에서 그쳤겠죠. 사업을 이만큼 성장 시킬 수 있었던 건 그때 주저하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갓 시행하는 법은 사업 현장의 현실을 세세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사업자 간 조율을 위해 그는 협회를 발기했고 그렇게 사업에 용이한 방향을 잡는데 20여 년이 걸렸다. 첫 단추를 잘 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구어 온 길이다. 이른 나이부터 회장단으로 활동하면서 학력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자 박순용 동문은 51세에 방송통신고 입학을 시작으로 60세에 경영대학원 석사까지 마치며 그동안 맺혔던 배움의 한을 풀어냈다.

“살면서 학벌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니 더했죠. 50대에 학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끝장을 보자고 달려들어 꼬박 10년을 공부했네요. 석사까지 마쳤으니 감지덕지하죠. 그동안 마음에 가득했던 응어리를 다 풀었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좀 더 공부하고 싶어 대학을 알아보던 중 세종 사이버대학교의 부동산자산관리학과가 눈에 띠었다. 전국 최대 설비를 갖춘 폐차사업소와 이 규모의 다섯 배는 족히 되는 야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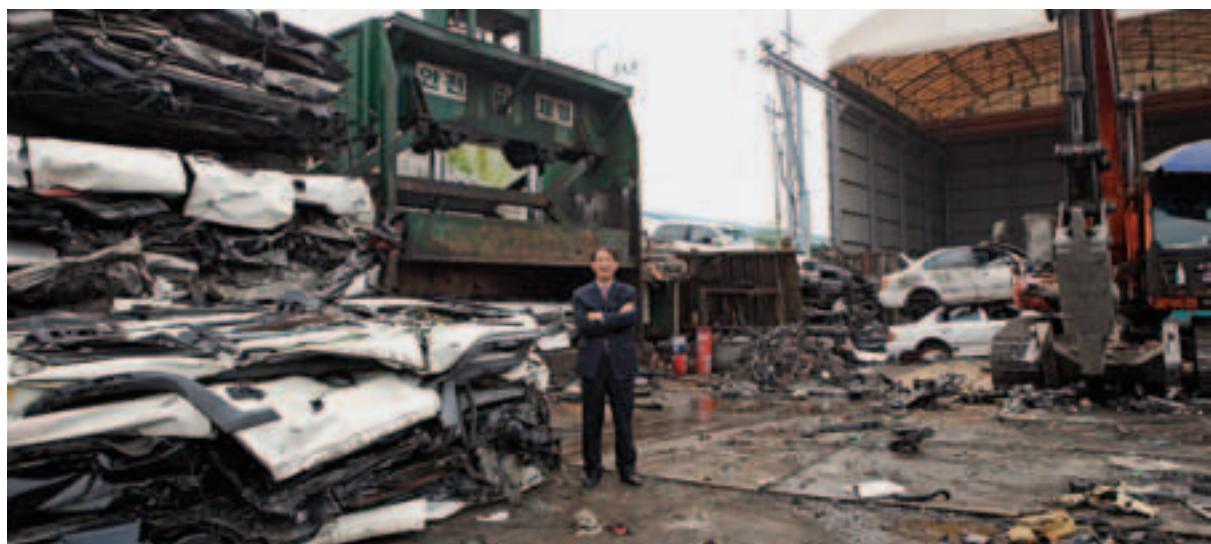
굴지의 폐차사업소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고액기부자 클럽에 이름을 올린 따뜻한 기부자. 어렵던 시절, 인생의 기로에서 경제적 부담 탓에 배움의 갈증을 채우지 못한 그에게 세종사이버대학교는 든든한 조력자였다.



行 吾 之 直 心



박순용 동문의 사업 원칙 안전과 발전. 거대한 기계를 다루는 사업소에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사고 없는 작업 완수를 위해 그도, 직원들도 언제나 원칙을 준수한다. 박순용 동문은 안전을 기반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에 몰두한다. 생각과 고민을 넘어서 행동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덕(德) 글자 풀이인 행오지직심(行吾之直心)을 늘 되된다. ‘나의 곧은 마음을 행동으로 옮김’이라는 의미다.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면 실천하라. 비로소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66
안전 또 안전
99

굴지의 폐차사업소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고액기부자 클럽에 이름을 올린 따뜻한 기부자. 어렵던 시절, 인생의 기로에서 경제적 부담 탓에 배움의 갈증을 채우지 못한 그에게 세종사이버대학교는 든든한 조력자였다.

을 운영하는 그에게 부동산 관리는 꼭 배우고 싶은 분야였기 때문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커리큘럼에 기대를 안고 강의를 들은 그의 반응은 ‘역시’였다고.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 개발 전문가, 경매 일인자 등 여러분야 전문가의 생생한 실전 경험의 아주 유익하게 다가왔다. 특히 강의를 통해 습득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절차나 관련 법에 대한 지식은 사업가로서 자산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든든한 바탕이다. 박순용 동문은 ‘세종사이버대학교 편입은 경영자로서 경영도 배우고, 현재 소유한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다’며 만족의 미소를 지어 보인다. 수업 내용을 조금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 빠짐없이 강의를 들었다는 그가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얻은 또 하나, 학우들과의 인연은 부동산자산관리에 대한 지식 그 이상이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난 학우들과는 이해관계를 떠나 편하고 순수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기에 더욱 소중하다.

“사이버대학교의 특성상 만학하는 학우가 많았어요. 다들 바쁜 가운데 공부한다는 동질감이 있다 보니 어떠한 계산이나 부담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모두 본업에 충실하기에 자주 만나진 못하더라도 SNS를 통해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 자신과의 약속, 나눔의 실천

80년대 중후반에 열린 마이카 시대부터 박순용 동문의 사업은 성장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졌을 뿐더러 이전엔 거리 아무 데나 방치했던 폐차들을 정부 협力 사업 전환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차장에서 처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도로에 차가 늘어날수록 사업의 규모도 덩달아 커졌다.

성공한 사업가의 반열에 올랐지만 박순용 동문은 배고팠던 시절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지난날을 돌이키며 삶이 어느 정도 인정되면 꼭 주변 사람을 돋겠다고 생각해왔다. 박순용 동문은 봉사단체인 인천중앙라이온스클럽의 회장, 인천지구 총재를 역임하며 30년간 활동하고 있고,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

이어티 인천지회 초대 회장, 남동이행복한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지내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지속적으로 돋고 있다. “라이온스클럽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어 명절 때면 소외된 이웃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바쁘면 시기를 놓치고, 시기가 지나면 소홀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습니다.” 기부를 안 한다고 한 소리 듣는 것도, 재산을 암류당하는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단체를 통해 ‘계약’을 한 것은 매년 2천만 원 기부라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어려운 곳에 관심을 두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니겠냐는 박순용 동문. 그가 말하는 봉사와 기부는 사회 어두운 곳에 있는 이들에게 금전적인 지원 그 이상의 힘이며 희망이다. 남동이행복한재단 이사장 역임 시, 재단을 통해 100만 원씩 월세 보증금을 지원 받은 소외 이웃들이 고리대금의 높은 베어나 재기에 대한 의욕을 보이는 모습에 그의 가슴도 덩달아 뜨거워졌다.

“누군가에겐 크지 않은 금액일지라도 어떤 이들에게는 돈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삶에 빛이 비치면서 사회의 따뜻함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인생을 다시 쌓아 올리고자 하는 희망과 활기 가 느껴져요. 세상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나눔이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방법이라는 그는 암에 걸려 1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록펠러가 자선사업을 시작한 이후 43년을 더 살았던 이야기로 말을 이었다. 남을 도움으로써 느끼는 희열의 에너지가 아니었겠느냐며 사람 좋게 웃는다. ‘오늘이 즐거우면 평생이 즐겁고, 하루가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하다’는 말을 늘 되새긴다는 박순용 동문. 못다 한 배움의 조각을 채우고, 가진 것을 어려운 이와 나누며 매 순간에 충실했던 그는 앞으로도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걸음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R

부동산자산관리학과 06학번으로, 1981년 인천에서 처음으로 폐차사업을 시작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을 일궈내 지금에 이르렀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꺼이 돋고자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부와 봉사를 실천 중이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의 회원이다.

세프, 사업가, 아버지 그리고 다시 학생

외식
창업
프랜
차이
즈학
과

강병규
학우

● 뜨거운 기름솥 안에 끓는 정직한 마음

탄탄한 내실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병규돈가스의 대표이자 중소기업 식품협회 이사, 한국중소기업프랜차이즈협회 부회장. 작은 명함 속에 빼곡하게 채워진 직함들은 강병규 학우가 얼마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좋은 학점을 유지하는 성실함에 놀라자 학생의 본분을 다할 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지금의 강병규 학우는 여유 넘치고,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시행착오도 있었고 견디기 힘든 순간도 찾아오곤 했다. 20년 전, 아직 국내에 일식 돈가스의 개념이 희미하던 시절에 우연히 명동의 유명한 돈가스 집에 들른 것이 계기가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강병규 학우는 돈가스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동시에 부담 없는 가격으로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외식산업의 가능성도 보았다. 그렇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정통 제조기법을 배우기 위해 일본에 드나들며 만반의 준비 끝에 1997년 자신의 이름을 건 가게를 오픈했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는 않았다. 운영이 어려워지자 월급을 받으며 다른 주방에서 일해보라는 제안에 흔들리기도 했다. 결국 열악한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고, 다섯 살 난 아들이 폐렴을 앓았을 때는 강병규 학우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당장 힘들어서 포기하면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사업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버렸어요. 이제는 단골이던 7살 꼬마가 다 커서 시집을 가더니 자기만 한 딸을 데리고 가게에 옵니다. 본점은 아직도 처음 개업한 자리에 자그마하게 그대로인데, 조금 더 넓은 장소로 옮기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단골들이 말리네요. 병규돈가스는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자신들에게는 추억의 장소라고 말하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시련을 묵묵히 버텨낸 강병규 학우는 대전·충청 지역에서 믿음직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가장 좋아하는 강병규 학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 앞에 대담한 그는 오늘도 세프이자 아버지이며, 사업가이자 학생으로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다.



외식
창업
프랜
차이
즈학
과
강병
규학
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가장 좋아하는 강병규 학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 앞에 대담한 그는 오늘도 세프이자 아버지이며, 사업가이자 학생으로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조언

상권분석과 상품에
대한 고민 없이
유행만 좇는 현실이
안타깝다. 창업하려는
프랜차이즈가 사업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



66 천천히 오래가는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99

한 브랜드로 자리 잡은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되었다. 세종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병규돈가스는 본격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진출했다. 그 과정에서 학우들의 도움도 커다. 앞장서서 입소문을 내주고 직접 찾아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사람과 진심으로 관계를 맺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강병규 학우에게 교내 소통은 생활의 값진 윤활제가 되어준다.

“오프라인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다양한 계통의 프랜차이즈 대표님들,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자리를 자주 가집니다.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보완해주는 인적교류에서 얻는 것이 많아요.” 사업의 규모가 커졌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초심을 지키고자 한다. 애정으로 성장시킨 프랜차이즈가 고객들과 오래도록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정직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위생적인 주방에서 좋은 재료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해요. 그 다음이 맛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직하면 맛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요리하면 당연히 맛이 있으니까요. 저는 스스로 사업가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요리를 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세프라고 생각하죠.”

● 삶 속에 배움을 벼무리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와 강병규 학우는 입학 전부터 인연이 있었다. 프랜차이즈를 경영해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프랜차이즈가 기반을 다지고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생긴 강병규 학우는 설불리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 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그래서 중소기업프랜차이즈협회의 부회장을 맡아 빨 벗고 나섰다. 가맹점 50개 이하의 중소기업 프랜차이즈가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도울 수 있도록 협회를 구축하는데 힘을 보태었다.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프랜차이즈협회와 세종사이버대학교 외식창업프

랜차이즈학과가 MOU를 맺어 어윤선 교수를 만나게 되었다. 혼직의 최전선에 있는 강병규 학우와 프랜차이즈산업을 학자로서 연구해 온 어윤선 교수의 대화는 깊어졌고 강병규 학우는 교수님의 열정과 학문적인 이론에 매료되어 입학을 결심했다. 젊은 시절 전공한 경영학은 당시 그에게 피부로 와닿는 학문은 아니었다. 하지만 필요해져서 시작한 공부는 그에게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준다.

“20년 넘게 외식산업에 종사한 전문가인데도 배우면 배울수록 궁금한 것들이 생겨납니다. 경영학으로는 해소할 수 없었던, 실제 사업에 활용 가능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사업체를 경영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어 기쁩니다. 또 매장과 주방의 동선이나 슈퍼바이저의 운영에 대한 수업들은 프랜차이즈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리에 몰두하여 보냈던 20여 년의 세월, 폐렴에 걸려 아버지를 애타게 했던 아들은 장성했다. 아들에게 용돈 한 푼 줘 주지 않고 중학교 때부터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켜 시급을 계산하며 무심하게 말하지만, 아들의 이야기를 하며 슬며시 미소 짓는 아버지에게서 강하지만 따뜻하게 아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묻어난다. 세프이자 아버지이기도 한 강병규 대표는 동시에 정직한 마음으로 브랜드를 이끄는 대표로서 큰 그림을 그리며 이제 배움의 길을 걷고 있다. 2017년이면 4학년이 되는 강병규 학우는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다.

브랜드가 옳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꾸준한 공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는 프랜차이즈의 대표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R

1997년 대전에서 ‘병규돈가스’를 창업하며 외식산업에 뛰어들었다. 젊은 시절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세종사이버대학교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14학번으로 편입했다. 편입 후 본격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진출, 현재는 전국 11개의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의 대표이다.



모두 함께 어울려 즐겁게 한마음 축제의 현장

지난 9월, 학우와 동문 그리고 교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2016 한마음 축제'를 유쾌하게 치렀다. 올해의 테마는 '원스 어 폰 어 타임 인 조선'으로 곳곳에 고운 한복을 입고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땀 흘려가며 게임에 참여하다 보니 한층 더 돋보여져 해가 지는 줄도 몰랐다는 후문이다.



강우원 교수, 저서 『은퇴학개론』 발간

자산관리학부 강우원 교수가 은퇴 후의 삶에 지침서가 되어 줄 책을 펴냈다. 은퇴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에게 검증된 자료와 통계를 근거로 전략을 제시하고 응원한다.

[강우원 저, 책과 나무, 2016.6 발간](#)



세사인, 세계를 품어라 호주 그리피스대학교와 협약 체결

학우들이 넓은 세상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더 생겼다. 지난 8월에 체결된 협약으로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그리피스대학교에서 영어 연수를 받거나 교환학생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경영학과와 호텔관광경영학과 학우들은 어학·학점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복수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www.sjcu.ac.kr](#)



세계 속의 SJCU 한국어학과 라오스 해외봉사활동

한국어학과 구성원들은 한국교육문화진흥원 봉사팀과 함께 지난 7월 라오스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아이들에게 준비해간 학용품을 선물하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2016.7.25~30. 라오스 방비엔 일대](#)



부탁해! 섬기미 SJCU 봉사대 제1회 농촌 일손 돋기

9년째 다달이 주말을 끊어 정기 봉사 모임을 갖는 봉사동아리 '섬기미'가 수확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경북 상주를 찾아가 훈훈한 감동을 자아낸다. 재학생, 졸업생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는 섬기미와 의미 있는 활동에 뜻을 보탠 총학생회까지 40여 명의 인원이 포도 수확을 도왔다. 섬기미는 이 활동을 시작으로 주기적인 농촌 일손 돋기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6. 9.24. 경북 상주시 노류리](#)



신선한 재료, 뛰어난 솜씨 '테이블 포포'

특별한 날 혹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날, 서래마을로 가자. 조리산업 경영학과 학생이 운영하는 테이블 포포가 위치해 있다. 이미 서래마을에서 입소문을 탈 만큼 탄 유러피안 레스토랑으로 멋스런 플레이팅과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맛이 으뜸이다.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엄선해 날마다 메뉴가 다른 코스요리로 준비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14길 11](#)



당신과 학교 사이,

부푼 꿈을 안고 입학했지만 바쁜 일상 생활을 보내며 강의와 과제, 시험을 동시에 해내기는 분명 고된 일이다. 하지만 걱정 하지 말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와도 꿈을 향해 배움의 길을 선택한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독여주는 든든한 멘토가 세종사이버대학교에 있다.

TUTOR

1:1 튜터 제도란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센터 학생지원팀에는 학우들이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돋는 1:1 튜터들이 상주한다. 학우들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무엇이든 언제든 튜터에게 물어볼 수 있다. 1:1 튜터 제도는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의 입장에서 학습문제를 해결하고 학습능률을 높여주는 데 목적을 두고 학우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소통하기 위해 생겨났다. 학우가 학사일정 중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튜터가 먼저 확

꿈을 잊는 파트너

1:1 튜터 제도

인하여 안내해주기도 한다. 학생들은 입학 전부터 입학 요건과 제출서류에 대해 튜터들에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합격 후에는 등록 절차까지 튜터가 함께한다. 홈페이지 이용방법부터 수강신청, 진도율·출석률 관리, 휴·복학, 조기졸업 신청 등 모든 학사일정을 아울러 학우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나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는 사람, 세종사이버대학교의 튜터다.



양 한 을 튜터

김 유 리 튜터

정 성 옥 튜터

전 하 나 튜터

당신과 학교사이,

조기 졸업 대상자인 줄 모르고 있다가 저희 안내를 받은 학생이 우수한 성적으로 조기 졸업할 때, 함께 보람을 느껴요.

전하나 투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면 저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문제없이 학교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양한울 투터



목표를 갖고 학교생활을 선택한 만큼 힘겨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입학할 때의 그 첫 마음가짐을 학우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투터

저희와 학우님들은 입학 전부터 인연이 시작돼요.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모든 학사일정에 저희가 함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성옥 투터

더 보람된 학교생활을 위해

성실히 강의를 듣고 공부해서 중간고사를 준비했는데 시험이 시작되고 갑자기 컴퓨터가 불통이라면 어떻게 할까? 마음을 편하게 먹고 투터에게 연락하자. 원격 조정으로 컴퓨터의 문제를 솔跛주고 시험도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지정된 시간 내에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교수님의 동의하에 시험 시간을 연장해 주기도 한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수강 신청 기간에는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살펴주고 학기 중 출석률이 낮아 F 학점의 위기에 놓였을 때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역할까지 해준다. 이처럼 학교생활을 하며 생기는 모든 문제점과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소해 주는 1:1 투터 제도는 그 창구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사이버대학교의 특성상 수강시간과 수강 패턴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우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서다. CRM과 쪽지, 이메일, 전화 등 여러 창구가 열려있으니 사이버대학교 생활에 서툴거나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구하자.

MENTOR

학교생활의 러닝 메이트

2016학년도 후기 입학생을 대상으로 PC 오리엔테이션이 처음 진행되기도 했다. 컴퓨터 사용이 미숙하여 사이버대학교 생활에 두려움을 느끼는 학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자리였다. “막상 홈페이지 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나면 별 탈 없이 학업을 이어나가시는데 PC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걱정하시기도 해요. 그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죠.”(전하나 투터) 더욱 쉽고 편하게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학우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투터들은 아쉬운 성적으로 학기를 마무

리하는 학우를 볼 때면 안타깝고, 투터들 덕분에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고 학우들이 고마움을 표현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목표를 갖고 입학을 선택한 만큼 학교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학우들이 첫 마음가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김유리 투터) 모든 학우들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지만 수많은 학우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학우들이 문제없이 사이버대학교 생활을 해나가길 바랄 뿐이다. R

깊고 넓은 마음을 기르다

2016 제1회 해외문화탐방

기말고사를 무사히 치르고 1학기를 마무리한지 얼마 되지 않은 6월 24일, 이른 아침부터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우와 교직원으로 구성된 33명은 기분 좋은 소풍을 떠나듯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전국 각지에서 삼삼오오 인천공항으로 모였다.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준비된 제1회 해외문화탐방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온라인 학교생활이 주를 이루다 보니 아무래도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아 어색한 기류가 잠깐 흐르기도 했지만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이야 기와 여행에 대한 기대를 나누며 서먹한 기운은 금세 누그러졌다. “2015년 여름학기에 ‘지구촌 문화의 이해와 테마여행’이라는 강의를 수강하면서 ‘서안’의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행할 친구가 있고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는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우들과 함께 서안으로 해외문화탐방을 다녀오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어학과 양명옥)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해외문화탐방은 학우들이 중국 서안 지방의 문화유적을 둘러보고, 경제·문화적으로 빠르게 발전해나가는 중국의 모습을 통해 국제적인 안목을 기른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더불어 참여한 학우들은 학과 간의 경계를 허물고 친목과 교류를 넓힐 기반도 다져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일원으로 중국 서안을 누비며 깊은 소속감을 느꼈다.

지난 6월, 세종사이버대학교

구성원들은 2016년 처음으로 마련된 4박 5일간의 해외문화 탐방을 통해 유서 깊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품에 안았다. 중국 서안 일대를 방문하여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체험하며 국제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었음은 물론 학과 간의 경계를 허물고 돋보한 인연까지 쌓았다.



DAY 1

S I L K R O A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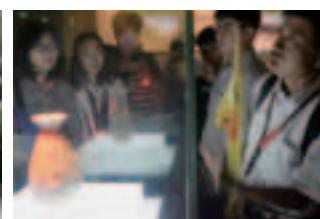
중국 서안

4 박 5 일 탐방 기

6. 24 ~ 28



실크로드 시작점



서역 역사박물관



민가의 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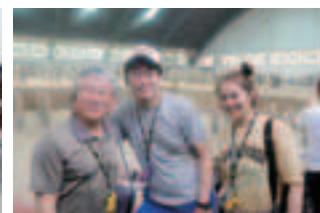
DAY 2



회족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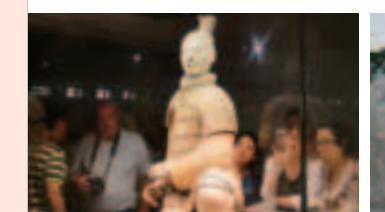
화청지



진시황 병마용갱



Q I N D Y N A S T Y



진시황릉



장한가쇼



깊고 넓은 마음을 기르다

DAY 3

HISTORY & CULTURE



팔로군 기념관

와룡사

소안탑

DAY 4

GOODBYE XIAN



섬서가무쇼

서안성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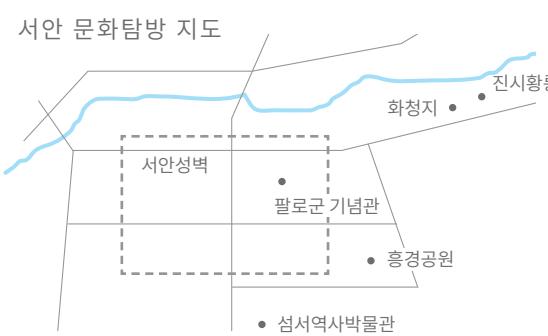
홍경공원

홍선사

중국의 고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는 도시, 서안



서안은 고대 주나라부터 한나라, 당나라까지 13개의 왕조를 거친 유서 깊은 곳으로 전세계에서 관광객이 찾아 든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의 서부 내륙 육성정책에 힘입어 국제적인 기업들이 유입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낯선 장소에서 하나 되는 기쁨

“짧다면 짧은 탐방이었지만 하루하루 쌓여 가는 신뢰와 우정 속에서 나이와 성별, 생각을 뛰어넘어 세사인들이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마케팅·홍보학과 양유리)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와서는 모두 모여 가볍게 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도 빠질 수 없는 여행의 묘미였다. 타지에서 낮과 밤을 오롯이 함께하며 해외문화탐방에 참여한 학우들은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다. 나이, 성별, 직책 등 서로를 구분 짓는 장대를 허물고 함께 어울리며 시간과 생각을 공유했다. 그렇게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한국으로 돌아와 각자의 일상으로 되돌아갔다. 제1회 해외문화탐방을 함께한 세종사이버대학교 구성원들은 다채로운 경험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며 내년에 준비될 해외문화탐방을 통해 다른 학우들도 이런 기회를 나눠 가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R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여행하고 탐구하다

실크로드 시작점에서 시작된 탐방은 춘추전국시대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굵곡진 역사 속에서 변화를 거치며 융성한 중국의 문화유산을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진시황의 거대한 무덤, 여전히 발굴이 진행 중인 병마용갱 등 중국의 대표적인 고대 유적지를 탐방했음은 물론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그린 장한가요, 당나라의 번성을 춤과 악기로 재현한 섬서가무쇼를 관람하기도 했다. 명나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서안성벽에서는 자전거 투어를 하며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정취를 만끽하는 한때도 보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과 중국의 문화가 결합된 곳으로 유명한 서안의 야시장 회족거리(回族街)를 자유롭게 누비기도 했다.

“고대의 문화유적 사이에 고층건물들이 지어지고, 변화한 시장에는 활력 넘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 속으로 발돋움하는 과거 같다고 할까요. 과거와 현재가 잘 어우러진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경주와 비슷한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행의 진면목을 다시금 느끼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부동산경매중개학과 이은수)

미래 기술에 앞장서다 게임테크디자인학과

게임테크디자인학과의 역사는 자그마치 17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세종사이버대학교는 2000년, 게임PD학과를 개설하며 누구보다도 먼저 게임산업에 대한 학문적 탐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7년, 지난 10여 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첨단 테크놀로지에 발맞춰 특화된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게임테크디자인학과는 전문 분야에 따라 세분화된 세 개의 전공트랙을 운영한다. 다양한 글로벌 게임플랫폼을 창의적으로 연구하는 ‘게임전공트랙’, 360도 VR, 4D 영상, 다면영상, AR, 휴로그램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실감영상콘텐츠전공트랙’, 3D 프린팅, IoT(사물인터넷) 등의 전문인재를 발굴할 ‘테크디자인전공트랙’이 구성되어있다. 전공트랙에 따라 자격증 제도를 마련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로드맵을 제공해 차근차근 목표에 다다르도록 돕는다. 각 전문 분야의 이론과 제작을 넘어 실무를 반영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실용적인 학습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현업에 종사하는 재학생이 주를 이룬다는 것도 게임테크디자인학과의 강점이다. 전문가 집단인 학우들이 학교에서 인연을 맺고 졸업 후에도 상호 교류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자격증 및 수료증

- 세종사이버대학교 민간자격증: 영상콘텐츠전문가
- 세종사이버대학교 수료증: 3D애니메이션디렉터전문가, 게임전문가, 실감영상콘텐츠전공트랙, 게임전공트랙, 테크디자인전공트랙



졸업 후 진출

- 게임전공트랙: 게임개발사, 게임기획사, 게임운영사, 디지털 콘텐츠 제작사, e-스포츠 관련업체 등
- 실감영상콘텐츠전공트랙: VR 영상콘텐츠제작사, 4D입체영상제작사, AR제작사, 3D애니메이션제작사, 방송국 등
- 테크디자인전공트랙: 3D프린팅제작사, 3D피규어제작사, 3D모델링제작사, 3D패션액세서리제작사, 디지털제조제작사 등

2017학년도 신설학과를 소개합니다

따뜻한 세상을 꿈꾼다

복지시설경영학과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경영 전문가를 양성한다. 윤리적 가치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조직의 경영 및 설립을 지원한다.

어떤 재난·재해에도 끄떡없는

소방방재학과

대형 재해와 재난에도 삶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 한다. 소방방재학의 전문지식은 물론 재해·재난의 예방부터 복구까지 실무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선도할

소방행정학과

소방공무원 시험준비부터 소방정책의 핵심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다. 이론과 실무를 결합해 언제든 실전에 투입되어도 손색이 없는 소방인재를 발굴한다.

글로벌 뷰티사업의 중심

뷰티디자인학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K-Beauty의 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뷰티디자이너를 길러낸다. 네일·메이크업·피부·헤어로 교육과정을 세분화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감각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라

실용음악학과

대중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연주 실력과 제작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실질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기획, 제작, 유통, 마케팅까지 연계하여 대중음악계로의 진출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꿈이 현실이 되는 세종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배움에 대한 열망과
자기계발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



미래 기술에 앞장서다 게임테크디자인학과

2017학년도 신설학과를 소개합니다

G A M E T E C H O O S I N G

게임에 스토리와 생기를 더하다

게임테크디자인학과 이 실 운 학우



메이플스토리, 크레이지 BnB, 마비노기영웅전 등 국내외 내로라하는 게임에 아름다운 음악을 입혀준 작곡가이자 사운드디자이너인 이실운 학우. 지금도 새로운 게임에 들어갈 음악을 만드는데 한창인 이실운 학우의 일과 학업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 들어보았다.

■ 게임음악 작곡가가 된 과정

어릴 적, 친구들과 어울려 이런저런 게임을 할 때도 게임 속의 스토리와 구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게임음악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웅장하고, 긴박하고, 신나는 음악이 잘 어우러졌을 때 게임의 스토리가 완성된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죠. 게임음악이 가진 힘이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10대 때부터 게임음악 작곡가를 꿈꿔왔습니다. 게임음악 작곡가로서 게임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긴 시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서툴고 힘들었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저만의 색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죠. 긴 기다림 끝에 기회를

얻어 게임음악 작곡가이자 사운드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 세종사이버대학교에 입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
20대 때 못다 한 학업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탐구의 빈자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느껴지더군요. 일을 병행하며 공부할 수 있는 게임 관련 학과를 알아보던 중 세종사이버대학교 게임테크디자인학과의 커리큘럼이 눈에 띄었습니다.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 배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실무 경험이 다양한 교수님들이 계신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실무와 밀접한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야근이 잦을 때는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해내는 것이 힘겨울 때도 있지만 지식이 는다는 즐거움을 몸소 느끼며 학교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게임테크디자인학과만의 장점

작업을 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게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소

통입니다. 단지 듣기 좋은 음악보다 게임의 콘셉트를 담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요소에서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며 게임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학과에는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협업이 중요한 직업의 특성상,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같은 업계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저로서는 전반적인 제작 과정에 대해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어 좋습니다. 특히 ‘디지털게임의 이해와 실제’와 ‘게임 연구워크샵’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죠.

■ 앞으로의 꿈과 계획

요즘 저는 게임음악 작곡가로서 더 역량을 기르고 싶은 것은 물론, 게임음악과 관련한 교육자의 꿈을 품고 있습니다. 더 세분화된 게임의 분야 속에서 미래의 게임음악 전문가들을 가르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미래를 위해 꿈의 자산을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세종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배움에 대한 열망과
자기계발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

COURSE 4 외식서비스마스터과정

한국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과 함께 외식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강자라면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 서비스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고, 본 과정 수료 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한국프랜차이즈 산업연구원에서 발급하는 ‘외식서비스마스터’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COURSE 5 네일 아트 국가자격증 준비과정/네일샵 창업과정

20년 이상의 현장 실무 경험과 100% 합격률을 자랑하는 더네일 아카데미와 함께 네일아티스트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미용사(네일) 국가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다. 동시에 ‘네일샵 창업 과정’도 함께 개설할 예정으로 유능한 강사진의 강의는 물론 창업 컨설팅도 받을 수 있어 네일샵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예정이다.

수강 기간	4~12 주
신청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강사진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및 외부에서 검증된 우수한 강사진
강의 형태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강의 특성에 따른 온·오프라인 혼합 강의
수강 신청 방법	홈페이지 혹은 전화 02-2204-8073, 8038
더 자세한 사항	http://edu.sjcu.ac.kr
장학 혜택	세종사이버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30% 장학 혜택 광진구민, 개인사업자, 직장인, 학부모 20% 장학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 장학 혜택 3인 이상 같은 과정 등록시 10%, 6인 이상은 20% 추가 장학 혜택

SE SAN HO

<http://cafe.daum.net/sesanho>

함께한 감동이 하나씩 늘어가는 기쁨
산악 동아리 ‘세산호’

세종사이버대학교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학우와 동문, 교수님들이 어우러져 꾸준한 만남을 가지는 모임이 많다. 전공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친분도 쌓을 수 있는 학과별 모임,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동문들이 돈독한 우정을 쌓는 지역 모임,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동아리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중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여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산을 오르는 중앙동아리 ‘세산호’를 소개한다. 세산호의 회원들은 완만한 산에서 평온한 암식을 만끽하고, 험한 산에서는 도전 정신을 기를 수 있어 산마다 다른 매력이 있다고 말한다. 매달 한 번씩 정기 산행을 떠난지 어언 12년, 계절마다 절경을 이루는 산을 찾고 하산 후에는 푸

짐한 제철 음식을 나누며 전국 팔도를 누볐다. 게다가 2008년부터는 해마다 한 번씩 해외 산행도 다녀오고 있다. 이국의 산이 가진 웅장함을 가슴에 품고, 크고 작은 위험을 함께 이겨내면서 그 감동은 배가 된다. 안나푸르나를 시작으로 올해 차마고도까지 세계의 명산을 두루 섭렵하는 해외 산행은 세산호의 가장 큰 행사이다.

‘세산호’ 김경주 회장에게 듣는 산과 사람의 매력

세산호와 함께 하고 싶다면?

—
김경주 회장
010-5273-6347

애정이 가득 담긴 동아리

각기 다른 나이와 직업을 가졌지만 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 함께 땀을 흘리며 산을 오르는 동안 세산호의 회원들은 이제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로 발전했습니다. 산행이 아니어도 자주 어울리며 학업과 생업, 개인적인 고민까지 함께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끈끈한 정을 주고받는 사람이 되었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내는 시너지 효과가 위대하다는 것을 몸소 느낍니다.

깊은 우정을 다시 나누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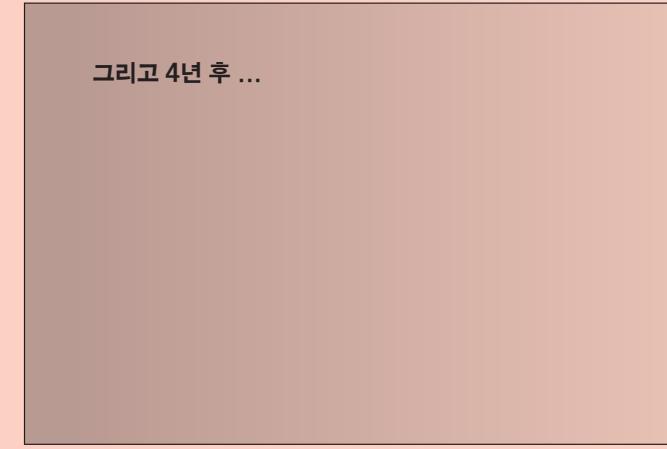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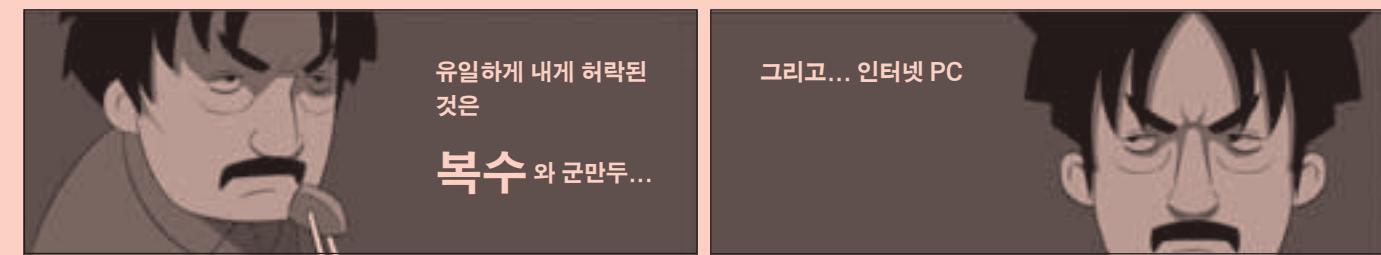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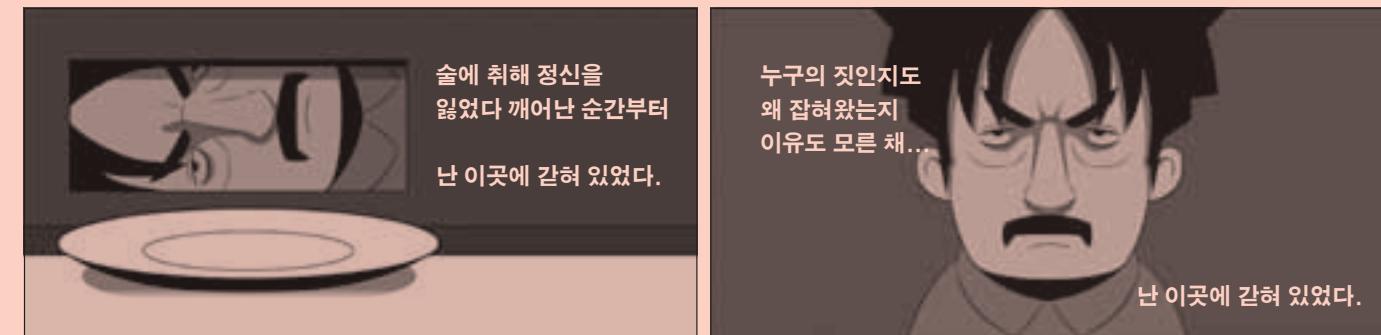
세산호와 함께하면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 것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회원들의 뜻을 모아 한 해에 한 번, 한마음 축제 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금을 모으고 회비를 적립하고 운영경비를 아껴서 학내에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는 학우를 돋고 있죠. 장학생이 저희가 그래왔던 것처럼 기쁨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저희를 전문 산악인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산호는 등산에 미숙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쉬운 코스로 산에 오르는 즐거움을 배우고, 차차 전문가 수준에 다다르는 것이죠. 동문들과 함께하며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고 덤으로 다양한 친구도 사귈 수 있으니 겁먹지 말고 자신 있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드보이 in SJC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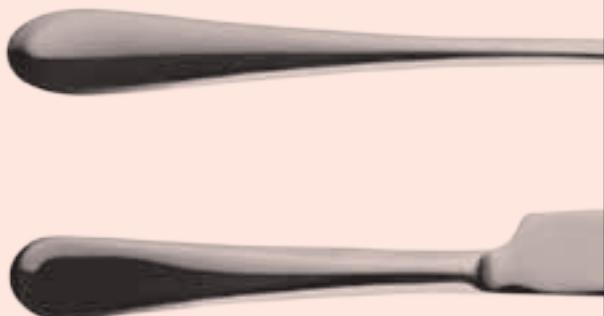
세종사이버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웹툰제작’ 과제
게임테크디자인학과 11학번 강진목 학우





Real On & Off

P.10 — P.11



Real On & Off

P.12 — P.13





R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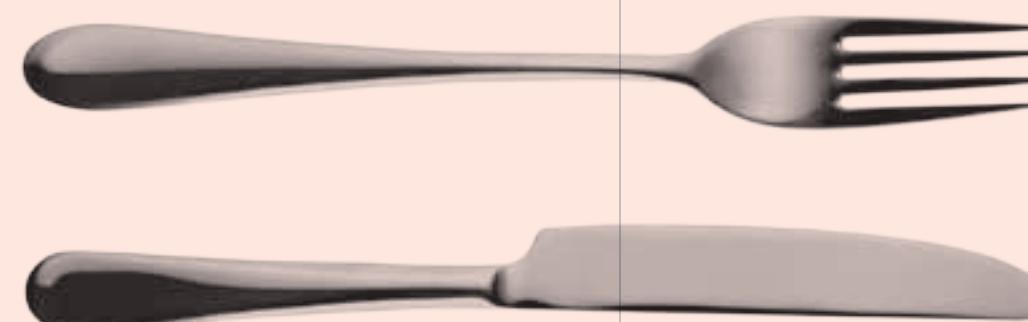
Real On & Off

P.10 —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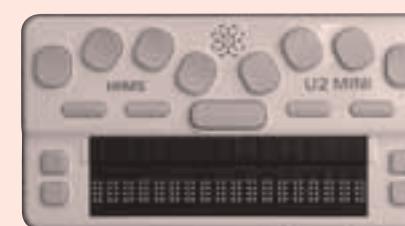


Real On & Off

P.12 — P.13



VOL. 2



Real People & Talk

P.2 — P.7



SJCU Plus

P.14 — P.16

